

북한 축구 ‘평양대첩’

브라질월드컵 예선, 일본 1-0 꺾어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22년 만에 평양에서 맞붙어 짜릿한 한 골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북한은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C조 5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4분 터진 박남철의 헤딩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일본에 1-0 승리를 거뒀다.

북한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예선 성적 2승3패(승점 6)를 기록,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이 확정됐다. 이미 C조에서는 일본(3승1무1패·승점 10)과 우즈베키스탄(3승1무·승점 10)이 최종예선 진출팀으로 결정됐다. 일본은 이번 평양경기에서 3차 예선 첫 패를 기록했다.

북한은 경기 초반부터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거친 몸싸움으로 주도권을 잡아 내 전반 5분 정대세의 강력한 원발 터닝 슈

팅으로 공격 포문을 열었다. 전반 24분에는 박성철이 날카롭게 감아찬 프리킥으로 일본 골문을 위협했다. 박성철은 전반 40분 최심의 다이빙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을 외면했다.

선제골은 북한의 몫이었다. 후반 4분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박남철이 달려들며 시도한 벼락같은 헤딩슛은 니시가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후반 32분 정일환이 위협적인 태클로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 북한은 10명이 싸워야하는 수세에 몰렸다. 일본은 후반 막판 네덜란드 출신 귀화 공격수 마르크 하베나르와 재일교포 4세 공격수 이충성(일본명 리 타다나리)을 연달아 투입하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끝내 북한의 수비를 뚫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첼시, 윤빛가람 ‘눈독’

레인저스도 임대 추진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윤빛가람(21)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레인저스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다고 스코틀랜드 일간지 스코티시 선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윤빛가람을 임대 선수로 활용한 뒤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몇 잉글랜드 팀들도 윤빛가람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레인저스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며 리그 3연패를 이룬 명문팀으로 기성용, 차두리가 속해 있는 셀틱의 대표적인 라이벌 구단이다.



앨리 맥코이스트 레인저스 감독은 부상 중인 스티비 네이시미스의 대체 요원으로 윤빛가람을 잠깐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대교체를 준비중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첼시도 윤빛가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빛가람의 해외진출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빛가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로 이적하게 되면 박주영에 이어 열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된다.

/연합뉴스

KIA 투수 코치 다카하시 등 3명 영입

다카하시 전 LG 투수코치 등 일본인 코치 3명이 선동열 사단에 합류했다.

KIA는 투수 코치에 다카하시 미치타케<사진>, 수비 및 주루 코치에 마츠야마 히데아키, 트레이닝 코치에 미나미타니 카즈키 코치를 각각 영입했다.

다카하시 투수 코치는 지난 1978년 주니치 드래곤즈에 입단해 4시즌을 뛰었고, 통산 60경기에 등판해 6승 6패 2세이브 방어율 4.92를 기록했다. 주니치에서 1.2군을 오가며 투수 코치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LG에서 투수코치를 지내는 등 25년간 지도자 생활을 했다.

마츠야마 수비 및 주루 코치는 1989년 오릭스에 입단해 1998년까지 현역생활을 했다. 1999년부터 한신과 오릭스에서 코치를 역임했다.

미나미타니 코치는 2005년 삼성에서 트레이닝 코치를 지낸 후 라쿠텐과 세이브에서



각각 컨디셔닝 코치로 활동했다. 이들은 현재 마자키 마무리캠프에서 선수 지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16일 최고참 이종범을 비롯한 선수 14명과 백인호·김지현 코치 등 16명의 선수단이 마무리 캠프에서 귀국한다. 귀국길에 오르는 선수는 이종범·이범호·김원섭·김상훈·차일목을 비롯한 주전급 선수들과 박경태·현철민·이재우·박세준·김종문·김종훈·변강득·정성철·박기철 등 14명이다. 이들은 광주 잔류군에 합류, 체력훈련 위주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막을테면 막아봐”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황민경(오른쪽)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55> 2008 시즌 SK 2연패

‘野神’ 김성근, 데이터 야구에 근성·세련미 더해 페넨트레이스·한국시리즈 제패 진정한 ‘챔피언’

2008시즌 SK 와이번스는 ‘데이터 야구’와 ‘근성의 야구’에 ‘세련미’라는 조미료까지 첨가해 최상의 요리로 2연패를 달성했다.

SK가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07시즌 상대 구단들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한결게 우승 고지를 밟았다면, 2008시즌에는 압도적이고 여유 있는 경기운영으로 페넨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제패하고 명실상부한 챔피언이 되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은 견(見)-시(視)-진(診)의 3단계를 통해 팀의 수준과 향후 기대치를 설명하며 “SK 선수들은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시(視)의 단계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견(見)은 별 뜻 없이 사물을 보는 수준, 시(視)는 대상을 유심히 살피려는 수준, 진(診)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읽어내는 수준을 말한다.

이에 김성근 감독은 새롭게 ‘눈높이 야

구’를 표방하며 선수가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야구를 주문했고, 선수들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마치 휴먼머신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 뜻을 경기장에서 풀어냈다.

SK는 시즌 초반인 4월20일 잠실 두산전 승리로 1위에 나선 이후 시즌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채 독주로 페넨트레이스를 마감했다. 시즌을 마감했을 때 2위 두산과의 승차가 무려 13게임차였으니 SK의 파죽지세의 행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는 2007년 우승을 하고도 타이틀을 홀더를 배출하지 못했었는데, 2008시즌에는 김광현이 페넨트레이스 MVP와 더불어 다승(16)과 탈삼진(153) 부문에서 2관왕에 올랐고, 채병용이 승률(0.833), 정우람이 홀드(25)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팀 우승에 기여했다.

타격에서는 최정·박재홍·정근우·김재

현·이진영·김강민·박경완·나주환·박재상·조동화·이재원 등이 신구조화를 이뤄 맹활약을 했다.

2008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4위 삼성이 3위 롯데에 3전 전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으나, 2위 두산에 2승4패로 패하면서 돌풍이 멈췄다.

2008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서 SK는 에이스 김광현을 내세우고도 두산 랜들-이재우의 막강 계투진에 막혀 2-5로 역전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SK는 1패 후 나머지 4연승을 거두는 저력을 발휘해 2연패로 V2를 달성했다.

2008시즌 개막 직전인 3월엔 베이징을 립픽 예선전이 진행되었고, 한국은 시즌 중인 8월엔 경기일정을 중단한 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결승전서 세계랭킹 1위 쿠바를 3-2로 꺾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감격을 누리기도 했다.

또한 2008시즌 무승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9월3일 잠실 두산-한화전서 자정을 넘기는 경기가 문제가 되어 원상 복귀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흥 강호 SK 와이번스가 시(視)의 단계를 넘어 진(診)의 단계로 진화할 것 인지에 주목을 받으며 2008시즌도 저물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첨단고 태권도 김형우

국가대표 선발 예선 금



첨단고 김형우(3년·사진)가 제20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및 2012년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형우는 14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끝난 대회 판공 경기에서 부산체고 신준호를 앞찍기 및 상단후려차기 기술을 앞세워 8-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서 만난 신준호는 올 시즌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강호로 판공에는 98명이 참가해 우승을 다했다.

김형우는 내년 시즌 조선대로 진학해 광주 대표로 뛸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 | | | |
|---|---|---|--|
|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빗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 전국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
|---|---|---|--|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펌싱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펌싱 무료점검
- 브러쉬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